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0/4(金)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3(木) 11:00부터

문의 : 유통산업정책실 정상의 실장(6050-1510), 정수경 과장(6050-1513)

## 4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비교적 맑음' ... 홈쇼핑 '활짝' 대형마트·편의점 '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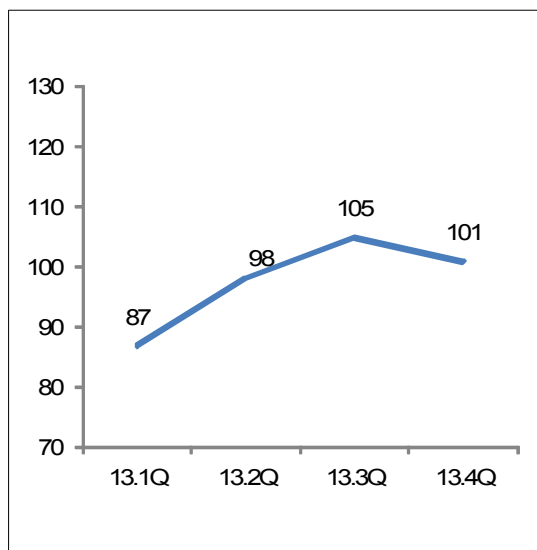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 1Q '87' → 2Q '98' → 3Q '105' → 4Q '101'
- 홈쇼핑(148), 백화점(108), 슈퍼마켓(106), 인터넷쇼핑몰(105)은 '호전', 대형마트(92)와 편의점(90)은 '악화'
- 애로사항은 '소비심리 위축 따른 매출 부진'(37%), '수익성 하락'(21%), '업체간 경쟁심화'(11%) 순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다소 하락했지만,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홈쇼핑은 큰 호황을 누리는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고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3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 추석 시즌 살아난 소비심리가 연말특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했다"고 풀이했다.

〈그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업체별 전망치를 보면 홈쇼핑이 전분기보다 44포인트 증가한 148을 기록하며 4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백화점(108), 슈퍼마켓(106), 인터넷쇼핑몰(105)도 기준치를 웃돌며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형마트(92)와 편의점(90)은 4분기 지수가 전분기보다 각각 6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하며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FBSI) 추이

업체	‘10년				‘11년				‘12년				‘13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홈쇼핑	104	133	129	134	102	122	118	109	115	139	134	138	77	104	104	148
백화점	116	116	120	121	134	129	109	105	96	107	109	102	95	109	113	108
슈퍼마켓	120	115	116	106	95	114	111	96	91	97	103	96	83	94	97	106
인터넷쇼핑몰	116	115	120	114	104	124	114	134	108	114	114	103	105	115	113	105
대형마트	122	122	126	124	131	131	130	102	103	97	87	87	76	82	98	92
편의점	109	120	124	105	72	118	125	112	105	105	112	98	81	93	105	90


홈쇼핑(148)은 모바일 매출이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시청률이 높아지는 동절기 특수와 함께 가을맞이 개편 등에 따른 마케팅 강화 효과로 매출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108)은 중국의 국경절(10월 1~7일) 연휴에 한국을 찾는 ‘큰 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과 예년보다 겨울추위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동절기 의류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슈퍼마켓(106)은 대형마트 정기 휴업으로 인한 평일 소량구매 고객 증가로, 인터넷쇼핑몰(105)은 편리성과 합리적 가격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 강화에 따라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형마트(92)는 영업규제로 인한 지속적 매출감소와 고객 수 감소, 방사능 우려로 인한 수산물 매출감소 등으로, 편의점(90)은 동절기 야간 유동인구 감소와 음료·아이스크림 등의 하절기 시즌상품 판매 감소 등으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유통업체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36.9%)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21.2%), ‘업체간 경쟁 심화’(11.1%), ‘유통관련 규제강화’(8.8%), ‘업체내 경쟁심화’(7.1%), ‘인력부족’(5.0%), ‘자금사정 악화’(4.4%) 등을 차례로 꼽았다. <‘상품가격 상승’3.5%, ‘기타’2.0%>

김경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침체, 경쟁심화, 영업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든 국내 유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은 모바일 쇼핑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8/26(월)~9/17(화)
- ☐ 조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소매유통업체 943개사
- ☐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